속속 등장하는 '불교 메타버스'

관음성지 천년 고찰 하세데라
전통불교음악 소묘 공연 시도
대만 불광산 '불광운우주' 출범
순례 · 여행 더 발전시킨 형태

박영빈 객원기자

온라인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에도 불교가 퍼지고 있다. 지난 9월 일본의 교토대학 연구팀이 불교 메타버스인 '테라버스' 개발을 발표한 이래 불교메타버스가 하나 둘 등장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일본의 'PR 타임즈'는 일본의 천년고찰인 하세데라(長谷寺)의 메타버스 공연을 전했고, 10월 2일에는 대만의 불광산(佛光山)에서 불교 메타버스 '불광운우주(佛光雲宇宙)'의 출범을 전했다.

일본 나라현에 소재한 사찰인 하세데라는 736년에 창건된 사찰로 일본에서 관음성지와 전통불교음악인 쇼묘(聲名)로 유명하다. 하세데라는 사찰의 자랑인 쇼묘를 메타버스를 통해 공연하고, 일본의 불교문화를 세계에 전했다. 하세데라 측은 "이번 쇼묘공연은 메타버스에서는 첫 시도로 이전 공연 영상을 편집해 공개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다음에는 실황으로 시도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 불광산의 불교 메타버스 '불광운우주'를 소개하는 후이랑 스님.
사진출처=국제불광협의회 온라인 회의 화면캡쳐

공연을 중계한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디센트라 랜드는 "일반적으로 메타버스는 실재하는 장소를 가상세계에 그대로 묘사하지만, 이번 공연장은 아무런 장식이 없는 검은색 돔의 형태로 현실과는 일선을 긋는 메타버스에서만 가능한 비현실적 공간으로 구성했다. 실험적인 시도를 통해 더욱 확대될 메타버스에 대한 다양한 방향을 검토하고, 불교음악에 의한 전통문화의 진수를 체험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을 본산으로 국제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불광산도 전용 메타버스인 '불광운우주'를 출범했다. 중국 온라인&모바일 게임 기업인 넷드래곤 네트워크 그룹과 공동으로 출범한 불광운우주는 지난 10월 2일 국제불광협의회 온라인 회의에서 공식 공개됐다.

불광산 측은 "불광운우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불광산과 인연이 있는 전 세계인들이 모일 수 있게 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불광운우주는 불광산을 창건한 성운대사의 교육 사업에 감명을 받은 넷드래곤 네트워크의 리우더젠(劉德建) 회장의 협조와 투자로 4년간의 개발 끝에 완성됐다.

메타버스의 출범을 공식 선언한 불광산의 후이랑(慧讓) 스님은 "불광운우주는 불교국가간의 순례와 여행을 더욱 발전시킨 형태다. 사용자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의 성별, 의복, 외모 등을 모두 마음대로 구축할 수 있고 모든 국적과 인종의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모여 부처님의 광명을 만나는 세계"라고 소개했다. 불광산 측은 "앞으로 더욱 개발에 나서 실제 불광산과 같이 시간별 예불이나 강의에 참여할 수 있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中 스타 이연걸, SNS서 공개 신행활동

수 년 동안 공개적인 활동 자제, 불교에 더욱 깊은 모습 보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배우 이연걸이 최근 SNS상에서 공개적으로 불교 신행활동과 관련된 게시물을 올려 화제다. 지난 9월 30일 중국의 '시나닷컴'은 이연걸의 SNS를 인용하여 그의 신행행보에 대해 보도했다.

독실한 불자로 알려진 배우 이연걸이 최근 자신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자신의 신행에 대한 행보를 대중에게 공개했다. 이연걸은 지난 몇 년간 공식계정에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고, 공개적인 외부활동을 자제하면서 한때 건강 이상설이 퍼지기도 했다.

이연걸은 7월부터 다시 게시물을 올리면서 건강한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은 자신의 딸, 혹은 유럽에 소재한 사찰이나 스님과 찍은 사진들이다. 특히 프랑스 남부에 소재한 티베트 사찰인 레랍링 사원에서 21일간 단기 안거를 마쳤음을 알리면서 이 안거가 2019년 입적한 레랍링 사원의 창건자 소걀 린뽀체와의 약속이었다고 전했다 이연걸은 "아름다운 사찰에서 3주간의 안거를 마쳤다. 린뽀체의 제자들은 나를 형제와 같이 대해주었고, 마치 집에 온 듯 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연걸은 가장 최근에 올린 게시물에서 자신의 정신적인 스승인 종사르 켄체 린뽀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공개하면서 스승과 자신의 수행에 대한



티베트 불교의 고승 종사르 켄체 린뽀체와 대담 중인 이연걸.
사진제공=이연걸 공식 인스타그램 캡쳐

기쁨을 소개했다. 그는 "22년 전 린뽀체를 처음 뵈었을 때를 기억한다. 지난 세월 동안 린뽀체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다"며 최근 종사르 켄체 린뽀체와 함께 대담을 가졌다고 이야기 했다.

새롭게 올라온 게시물들에 대해 전세계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특히 같은 불교신자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불교신자들의 롤모델이라는 찬사가 주를 이뤘다. 이연걸로 인해 불교를 만났다는 서양 팬들의 반응도 이어졌다. 중국 측 소식통들은 "이연걸은 현재 외부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이나 불교수행을 위해 보내고 있다"며 근황을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티베트 프로젝트, 비구니 사찰 개보수로 여성 교육 선도

사원 개보수 중간보고 발표
여성 교육 기회 제공도 가능

티베트 비구니 프로젝트가 후원하는 인도의 도르제 종 비구니 사원이 오랜 숙원이었던 사찰 개보수 사업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9월 30일 해외불교 전문매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티베트 비구니 프로젝트 보도를 인용해 도르제 종 비구니 사원 근황을 보도했다.

인도 히마찰프라데시주의 캉그라 지구에 본부를 두고 있는 티베트 비구니 프로젝트(TNP)는 "프로젝트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도르제 종 비구니 사원의 개보수 사업의 중간보고를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TNP는 티베트 여성협회와 티베트 망명정부 종교문화부의 후원으로 설립됐으며 티베트와 히말라야 지역의 티베트 난민출신 비구니들과 티베트 불교 문화권의 여성출가자들에게 교육과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인도 북부 라다크 잔스카르 지역에 위치한 도르제 종 비구니 사원은 7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비구니 사찰이다. 이곳은 티베트 불교의 중흥조로 알려진 쫑카빠 대사, 혹은 그 수제자 중 한 명인 쎄랍 상뽀 스님에 의해 14세기경에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래로 여성 출가자와 재가자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명성이 높았다.


개보수 중인 도르제 종 사원 전경. 사진출처=티베트 비구니 프로젝트

TNP는 "현재 도르제 종 사원은 세납 90세가 넘은 비구니스님 7명을 포함한 20명의 비구니스님이 기거하고 있다. 노스님들은 산 위에 세워진 옛 법당에서 기거하며 기도와 사원의 농작일을 소임으로 맡고 있으며, 젊은 학인스님들은 언덕 아래 지어진 새 방사에서 공부한다"며 사원의 현황을 전했다.

TNP는 "도르제 종 사원은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강당 1개 동과 창건 당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법당 1개 동으로 구성돼 현대 생활에는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에 비구니스님과 재가자들을 모두 포함한 50명의 학생을 수용할 교실과 기숙사, 공양간 등의 신축 및 개보수를 목표로 모연을 했으며 많은 기부로 인해 모연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사원이 위치한 지역은 교육 기회가 불균등하여, 개보수 된 사원은 어린 여성출가자와 재가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거점이 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에 첫 삽을 뜬 개보수 사업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제한과 잔스카르의 혹독한 겨울날씨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으나 지난 8월 2층짜리 기숙사가 완공됐다.

현재 1층은 대중스님들의 요사채로 사용되고 있으며 2층은 학교, 사무실, 공양실, 직원 숙소 및 회의실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TNP측은 "학교 건물을 새롭게 신축하면서 지역정부의 도움으로 수도시설도 함께 신설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사원의 학교에서는 초등 5학년 과정까지 교육을 제공하며, 이후 TNP가 제공한 셔틀버스를 이용해 10km가량 떨어진 공립학교에서 학업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르제 종 사원은 3층 규모의 별관을 신축하고 있다. 1층은 예불과 강의 등을 진행하는 다목적 강당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해당건물에는 도서관과 컴퓨터실을 조성하여 미래의 여성 출가자들에게 현대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용될 예정이다. TNP는 "사원의 개보수와 학생들을 위해 십시일반 모연해주신 모든 후원자들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회향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폭우로 붕괴 탑서 500년 전 복장품 발견

청동, 유리 불상 다수 드러나
부도탑 복원 가이드라인 작성

지난 10월 1일 태국 일간지 '방콕포스트' 및 '더 타이거' 등 여러 매체는 폭우로 붕괴된 부도탑에서 다량의 복장품이 발견되었다고 전했다.

태국 북부 최대 도시이자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치앙마이에 위치한 왓 시 수판(Wat Si Suppan)사원의 부도탑이 지속된 폭우에 붕괴됐다. 무너진 부도탑 잔해 사이로 500여 년간 부도 탑에 잠들어있던 복장품이 드러났다.

왓 시 수판 사원의 주지 프라 크루 피타수티쿤 스님에 따르면 "붕괴된 부도탑은 란나 시대(13~15세기)에 사원과 함께 창건됐다. 40년 전에 복원 작업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으나 정부는 부도탑을 관리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문화재 등록을 거부했다. 관리가 소홀한 탓에 최근 몇 년간 탑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폭우가 지속된 가운데 오


붕괴된 부도탑과 부도탑에서 발견된 복장품.
사진출처=더타이거

후 5시쯤 기단부에 균열이 발생했으며 부도탑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해 붕괴 위험을 고려하여 주변에 접근금지 라인을 설치했다. 시간이 지나자 부도탑이 무너졌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잇티폴 쿤플롬 문화부 장관은 "부도탑은 탑의 외부 크랙으로 인한 누수로 탑의 중심을 잡는 코어가 손상되어 붕괴됐다. 현재 복장품인 청동, 유리 불상 등 다양한 불교 유물들의 등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정식 등록을 마친 뒤 보존을 위해 사원에 다시 돌려줄 예정이다. 또한 부도탑 복원을 위해 탑의 구조를 연구하여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 삼론종
종 정 혜승 종정사서 보명
전계화상 혜공 승정원장 진봉
승정위원 인봉, 은곡, 지민, 지운, 지심, 명재, 지공
총무원장 해불 문화원장 혜관 문화부원장 마애 사정부원장 성우
종회의장 지경 원장사서 성화 포교원장 해인 포교부원장 지연
총무부장 근혜 교무부장 자원 수선원장 응진 수선부원장 성혜
사회부장 도일 재무부장 성덕 교육원장 법지 교육부원장 묘현
각 교구 종무원장
서울·경기 종무원장
충 북 종무원장 정연
충 남 종무원장 성현
대구·경북 종무원장 지화
경남·울산 종무원장 무간
전라·남북 종무원장 도암
강 원 종무원장 혜인
중앙종회 종회의원 지학 성현 성화 근혜 보명 묘현 성우 정연 성각 혜원 지화 응진 지연 자원 혜송 무영 해산 성덕 해인 무간 도암 도일
중앙신도회장
종도일동
총무원 주소 : 충남 서천군 문산면 문고길203번길 103 천용사 전화 043)878-0109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불모산 성주사
조실 서해 흥교 주지 법안 신도회장 보리 김이순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곰절길 191(천선동) 전화 055)262-0108~10